

다언어 화자 간 담화 상의 영어 자음 발음 수용과 수렴 현상: 영국의 한국인 영어 학습자 사례*

정 현 성

(한국교원대학교)

Hyunsong Chung, 2013. Phonological accommodation and convergence of English consonants in interlanguage talk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in the UK. *Language and Linguistics* 59, 241–266. Phonological accommodation and convergence in interlanguage talk in English as a lingua franca context were investigated to identify the lingua franca core of Korean learners of English. It was found that some non-canonical forms of English pronunciation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decreased in intelligibility when [kw], [gw] were pronounced without a glide; furthermore, [t] and [l] were replaced by [ɾ], [dʒ] by [z], [ə] by [s], and [ɪ] by [ɪ]. Successful accommodation, however, was found in English fricatives, which improved intelligibility. Thus, it is suggested that while an ILT situation could work well for phonological accommodation of some certain consonants, analytic approache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intelligibility of English liquids in Korean English speakers.

Keywords: English as a lingua franca, lingua franca core, interlanguage talk, pronunciation

주 제 어: 공통어로서의 영어, 공통어 발음 자질, 다언어 화자 간 담화, 발음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27-A00287).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 사용자가 영국이라는 환경에서 언어적 배경이 다른 원어민 또는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와의 다언어 화자 간 담화(interlanguage talk: ILT)에서 공통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lingua franca: ELF)를 사용할 때 보이는 영어 자음의 수용과 수렴 현상(accommodation & convergence)에 대한 분석이다. 영어가 전 세계적인 공통어(a global lingua franca)로 자리매김하면서 ILT 상황에서 이해 가능성(intelligibility)이 있는 발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세계 영어(World Englishes)나 ELF, EIL(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발음을 중심으로 Jenkins(2000, 2002)가 4년간에 걸쳐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 간의 담화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제시한 공통어 발음 자질(lingua franca core: LFC)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어민 영어 사용자와 같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것 보다, 이해 가능성만 있다면 모국어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발음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Jenkins는 LFC를 핵심자질(core feature)과 비핵심자질(non-core feature)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Jenkins, 2010:12-13).

핵심자질(core features)

- (1) 유/무성 'th'([θ], [ð])와 dark 'l'([ɫ])을 제외한 모든 자음
- (2) 긴장/이완모음의 장단 변별(예: 'peach' [pi:tʃ]와 'pitch' [pi:tʃ])
- (3) 어두와 어중 자음연쇄(consonant cluster)에 실현되는 개별 자음
- (4) 핵강세(nuclear/tonic stress)의 위치와 구현

비핵심자질(non-core features)

- (1) "영국표준영어"라고 할 수 있는 RP(Received Pronunciation, 이하 RP)의 'fur' [fɜ:]를 발음할 때의 모음 음가를 제외한 정확한 모음 음가의 실현
- (2) 자음연쇄에 삽입되는 모음(예: 일본인 화자가 'product'를 'peroducuto' [pa:rodo:kuto]로 발음하는 것), 단어 말 자음에 삽입되는 모음(예: 한국인 화자가 'luggage'를 'luggagi' [lagidʒi]로 발음하는 것)
- (3) 탈락, 동화, 약화 등 연속 발화에서 나타나는 연음 현상
- (4) 'th'의 정확한 발음(예: 독일인 화자가 'think'를 'sink'로 발음), dark 'l' (예: 프랑스어 화자가 'hotel'의 [l]을 발음할 때 연구개 근처에서 발음하

- 지 않고 치경에서 발음)
 (5) 단어 강세의 위치
 (6) 억양의 방향

위에서 제시한 LFC의 핵심자질은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에서 반드시 구분해서 발음해야 할 자질들이고, 비핵심자질은 동일한 의사소통에서 굳이 원어민 영어 사용자의 발음과 같이 구현하지 않더라도 상호 의사소통에 단절을 가져오지 않는 자질들이기 때문에 LFC 목록에서 제외되어도 되는 자질들이다. 이러한 자질을 정리해 보면 우선 단어 강세, 리듬, 억양 같은 운율은 LFC에서 거의 불필요하며 오히려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운율 요소 가운데 유일하게 중요한 자질은 발화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는 핵억양(nuclear stress)을 들고 있다. 반면, 개별음을 지칭하는 분절음의 경우에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모든 자음을 구분해서 발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LFC에서 제외되는 요소 가운데는 한국인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가운데 한 가지인 [ə]를 [s]로 대치하거나, [ð]를 [d] 등으로 대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시한 두 음을 서로 대치한다고 해서 비원어민간의 의사소통에 단절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어 놓았다. 모음의 경우에는 개별음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더라도 모음 간의 구분만 가능하다면 LFC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긴장모음과 이완모음의 경우(예: [i]와 [ɪ], [u]와 [ʊ]), 비원어민 화자에게 있어서 조음위치와 근육의 긴장도 조절을 통한 모음의 구분은 어렵기 때문에 모음의 길이로 구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질 목록은 다언어 화자 간의 ELF 담화 자료를 수집해 작성한 목록으로 무엇보다도 통제된 상황이 아닌 자연 발화에서 수집한 자료라는 점에서 진정성(authenticity)이 있고 타당성(validity)이 있다고 할 수 있다. Jenkins(2010)는 LFC에서 제시된 목록을, 정해서 따라하거나 모방해야 할 모델로 정의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뚜렷한 목표 지향과 규범이 있는 모델이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의 당사자들이 의사소통의 이해 가능성을 위해 발음의 수렴(convergence)을 위한 수용 능력(accommodation skills)을 개발해 가면서 나타난 결과가 LFC라는 것이다(Jenkins, 2000, 2002). 하지만 수렴과 수용 능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원어민 화자 간의 다언어 화자 간 담화

(interlanguage talk)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한국적 교실 상황과 같이 단일 언어권 문화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제공되기 어렵다. LFC가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한 다언어 문화권을 중심으로 생성된 이론이기 때문에 단일 언어 문화권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LFC를 구현해 갈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Jenkins(2000)는 모국어를 달리하는 영어 학습자들 간의 의사소통인 ILT 발음 모형을 <표 1>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ILT와 동일 모국어 화자 간 대화 모형(Jenkins, 2000:192)

ILT	→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한 수렴 현상 (convergence)	→	모국어 발음 대치	→	대화자간 대화 이해 영어 발음 습득 강화 다른 EIL 억양에 대한 노출
동일 모국어 화자 간 대화	→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연대감을 위한 수렴 현상	→	모국어 간섭 현상 유지	→	대화자간 대화 이해 모국어 억양 화석화 다른 EIL 억양에 대한 노출 전무

이와 같이 단일 언어 문화권의 동일 언어 배경을 가진 화자 간의 영어 의사소통은 기능성을 추구하면서 모국어의 영향이 그대로 묻어있는 발음을 통해서도 이해 가능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수렴과 수용이 발음의 화석화(fossilization)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의사소통이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이 아님도 물론이다. 비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수렴과 수용 능력 개발이 불가능한 것이다.

LFC 자질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50개 언어적 배경을 가진 1,250화자가 참여한 Vienna-Oxford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VOICE, 2013)와,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일본, 중국, 홍콩 등의 영어 담화 자료를 구축한 Asian Corpus of English(ACE; Deterding & Kirkpatrick, 2006), ASEAN 일부 국가를 포함한 24개국 연구 집단이 참여해 각국의 고유 지역 영어 자료를 수집한 The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ICE),

Jenkins(2000, 2002) 등의 음성 자료와 분석을 접할 수 있다. 이 중 VOICE 자료는 예제 음성 자료 일부가 공개되어 있고, 전 음성 자료를 XML로 태깅한 문서가 공개되어 있지만 다른 자료는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음성 자료 제공 없이 극히 일부 분석 결과만 논문을 통해 접할 수 있다. 공개된 자료 중에서도 한국인 영어 사용자가 참여한 자료는 Jenkins(2000, 2002)의 자료에서만 일부 찾아볼 수 있고, 다른 자료에서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ASEAN 국가의 LFC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위에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적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Deterding과 Kirkpatrick(2006)을 들 수 있다. Deterding과 Kirkpatrick(2006)은 ASEAN 상황에서의 영어 비원어민 화자 간의 다언어 화자 간 담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LFC를 분석하고 있다. ASEAN 소속 10개국의 영어 교사가 참여한 집단 담화를 바탕으로 ASEAN 화자 간에는 치마찰음인 [θ]가 [t]로, 어두 기식음 [tʰ]의 기식성이 약화되어 유성 자음 [d]에 가깝게 발음되지만 화자 간의 이해 가능성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큰 장애를 가지고 오지 않는 공유되는 자질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Laos 화자가 “three”의 어두의 [θ]는 [t]로, 초성연쇄에 오는 [ɹ]은 탈락시켜 [ti:]로 발음하거나, “holes”의 어말에 오는 [l]을 [n]으로 대치하여 [hoʊnz]로 발음하고, Vietnam 화자가 “sauce” 초성의 [s]를 [ʃ]로 대치하여 [ʃɔ:s]로 발음하고, Myanmar 화자가 “us”에 [t]를 삽입하여 [ʌts]로 발음하는 경우 서로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 상호 이해 가능성(intelligibility)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eterding과 Kirkpatrick(2006)은 구체적으로 발화의 측면에서 대화 상대방의 이해 가능성을 위한 수용과 수렴 현상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이해(perception)의 측면에서만 공유가 가능한 발음 자질을 분석하였다. 영국 또는 미국 화자가 ASEAN 국가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본인들의 발음 규범(norm)에서 벗어나 ASEAN 화자들에게 이해 가능한 발음으로 수용성을 보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ASEAN 지역의 영어 사용자에 대한 LFC 목록은 이와 같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한국인 영어 사용자의 LFC 목록에 대한 연구는 ELF 환경에서의 담화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직 없다. 한국인의 영어 발음에 대한 연구는 수없이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영어 발음의 정확성이나 평가(정현성, 장태엽, 윤원희, 윤일승, 사재진, 2008; 윤원희, 2008, 2011; 신승훈, 윤남희, 윤규철, 2011; Kim & Cho, 2011; 김지은, 2012)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여전히 비원어민 간의 이해 가능성에 관한 분석이 없었다. 최근에 서로 공유하는 중간언어로 인한 비원어민들 간의 영어 발화 이해 가능성 향상 효과(interlanguage speech intelligibility benefit: Han, Choi, Lim & Lee, 2011)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비원어민들 간의 이해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실험의 목적상 어쩔 수 없이 통제된 상황에서 대화의 한 당사자가 주어진 자료를 읽고 그것에 대한 청자의 이해 가능성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제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담화 상에서 발음의 수렴 현상이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한 분석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ELF 상황에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같은 모국어 화자인 또 다른 한국인 영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원어민 영어 사용자 또는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들과 실시간으로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할 때의 담화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였다. 두 번째는 이러한 담화 자료를 분석하여 ILT 상황에서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할 때 영어 자음의 수용과 수렴 현상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실험이 동일한 자료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정제된 결과를 도출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ILT 상황에서 발음의 수용과 수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2. 분석자료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모두 20명이 참여하였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15명이 여성, 5명이 남성이고,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국에 거주한지 1년 이하로 이루어져 있다. 원어민 영어 사용자는 모두 10명을 계획하였지만 8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 2명은 중복 참여하여 10명이 참여한 것처럼 진행하였다. 영국에서 녹음이 이루어진 만큼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영국 출신이었다. 1명은 미국령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났지만 영국 영어 화자이고, 나머지 1명은 호주 출신이었다.

6명은 여성, 2명은 남성으로, 그 중 여성 1명, 남성 1명은 예정된 피험자가 나타나지 않아 각각 중복해서 녹음에 참여하였다. 비원어민 영어 화자의 경우 핀란드, 스페인, 폴란드, 일본, 이태리, 칠레, 대만 출신이 각 1명씩 참여하였고, 그 중 칠레, 대만 출신 화자는 예정된 피험자가 나타나지 않아 역시 중복해서 참여하였다.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들도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에 거주한 지 1년 미만이거나 1년 남짓 되었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평균 연령은 24세(18-33세)였고, 원어민 영어 사용자의 평균 연령은 30세(20-51세),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의 평균 연령은 29세(19-40세)였다.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 중 스페인 출신 영어 사용자 1명은 연령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화 자료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다섯 가지 주제를,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몇 가지 단서를 명시한 A4 크기의 활동지로 작성하여 동일한 문서를 함께 보면서 10분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였다. 주제는 “Packing a weekend bag,” “The story of my life,” “Language learning,” “Travel,” “Getting to know you”가 각각 제시되었다. 중복해서 녹음에 참여한 2명의 원어민 영어 사용자와 2명의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영어 사용자들에게 주어진 대화 자료가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녹음은 영국 런던의 UCL(University College London) research department of speech, hearing and phonetic science의 방음이 되어있는 녹음실에서 진행하였다. 두 개의 마이크와 두 개의 채널을 사용하기보다 자연스러운 대화 진행을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마주보고 하나의 마이크에 하나의 채널로 녹음하였으며 Cool Edit 2000 Version 1.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44.1 kHz 표본화(sampling)와 16 bit 양자화(quantization)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 변환하였다. 마이크는 Rode NT1-A를 사용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언어 및 신상 배경을 확인하기 위한 신상 설문과, 녹음된 자료의 모든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한다는 권리 양도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3. 전사

피험자를 대상으로 각각 10분간 진행된 총 50개(20명 * 3명(한국인, 원어

민, 비원어민) - 10명(한국인 끼리 서로 겹치는 인원) = 50개 대화)의 자유 대화 음성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음성 자료에 대해 우선 담화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원칙에 따라(Atkinson & Heritage, 2006; Lindemann, 2006; Hughes & Reed, 2006) 철자 전사를 진행하였다. 철자 전사와 발음 분석은 음성학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음성 자료는 시간별 철자 전사를 위해서는 GoldWave v5.68을 사용하였고, 음향 분석을 위해서는 Praat 5.3.23을 사용하였다. 전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음성 자료 전체에 대한 전사는 지양하고 사전 청취를 통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간을 우선 선별한 후 그 구간과, 그 구간 전후 2분 정도를 철자 전사한 후 분석하였다.

4. 수용과 수렴 현상 분석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Jenkins(2000, 2002)가 제시한 수렴 현상이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동일한 모국어를 공유하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간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되는 자음 발음 목록이 영어가 모국어이거나 공용어나 제 2언어 이상인 화자, 또는 동일하게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화자와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음 목록의 수용 현상을 통해 수렴 현상에 이르고 있는지를 본 연구에서 관찰하였다. 수렴 현상을 보인다면 어떠한 목록에서 변화가 있고, 여전히 수렴 현상에 어려움을 겪는 목록은 무엇인지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반드시 ‘습득’ 또는 ‘학습’해야 하는 발음 목록은 무엇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공통어로서의 영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발음 목록은 무엇인지를 밝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상황에 적절한 LFC 목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영어 자음의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과 비음, 마찰음과 파찰음, 접근음의 세 영역으로 대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4.1 파열음 및 비음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비정형적 발음(non-canonical forms) 가운데 이해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사례는 어말이나 형태소 경계에 나타나는 파열음에 모음

삽입, 철자 상으로 동일한 비음이 연속해 오는 경우(예: grammar) 비음을 길게 발음하고, 파열음을 마찰음으로 대치하는 경우였다. 반면, 반자음이 있어서 원순이 수반되는 파열음 [kw], [gw]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모음과 비강세 모음 사이에 오는 [t]를 설탄음 [ɾ]로 발음할 경우 원어민이나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의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방의 발음을 인식하는 측면에서는 파열음이 기식화되지 않는 경우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원어민 발화에 대한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비정형적 발음이지만 이해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사례로 어말이나 형태소 경계에 나타나는 파열음에 삽입되는 모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K03_K04, 2:04-2:13)

K03: And my brother is a student ['stju:dəntʰi]. And [ɛndi] my brother is living ['riviŋ] in Paris now. He is a exchange [iks'ʃendʒi] student ['stju:dəntʰi].

(K03_K04, 7:03-7:07)

K03: What kind [kʰa:ndi] of [ovi] ... movie do you like [ʒa:k]?

(K15_K16, 5:22-5:33)

K15: I heard UK is the most developed [dr'veləptɪd] in this part.

K16: Really? I didn't know that.

위의 예에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빈번하게 어말이나 형태소 경계에 오는 파열음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음 뒤에도 모음을 삽입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비정형적 발음 때문에 동일한 한국인, 원어민 영어 사용자,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이해 가능성에 지장을 받는 경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아래 사례와 같이 철자 상으로 동일한 비음이 연속해서 오는 경우 그 비음을 길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또한 이해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K04_ES02, 4:02-4:08)

K04: My grammar ['græm:ər], something in culture, I think ...

흥미로운 것은 아래 사례와 같이 파열음을 한국어에는 없는 마찰음으로 대치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K08_NES04, 7:22-7:47)

NES04: OK, so (1.4) ((with laughing)) (I think) a reason. How is very obvious. OK, can you say how your family is, your family are your important =

K08: people [fɪfl]

NES04: = people or who made a difference in your life.

K08: Mm, my family is uh: very important[ɪmˈfɔːtənt].

NES04: Uh, uh.

K08이 대만 출신 NES04와의 대화에서 두 번씩이나 [p]를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f]로 대치하고 있는데 대만 출신 영어 사용자의 이해 가능성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 이것은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히브리어 영어 사용자들이 종종 “hair”를 “air”로, “air”는 “hair”로 발음하는 (Celce-Murcia, Brinton, & Goodwin) 과잉 일반화(overgeneralization)의 경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비정형적인 발음으로 대화 상대방의 이해 가능성에 지장을 주는 요소 가운데 우선 반자음이 이어오기 때문에 원순이 수반되는 파열음 [kw], [gw]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사례를 들 수 있다.

(K01_ES01, 6:20-40)

ES01: Are you, Are you studying here in this, in this country?

KS01: Yes .. uhm ..., I just studying English [ɪŋɡlɪsi]

ES01: English. In central London? Or

KS01: Yeah, in central, uh ... Do you know Leicester [restə] Square [skeə]?

ES01: Uh, sorry?

KS01: Leicester [restə] Square [skeə], Charing Cross Road.

ES01: Oh, Leicester Square, Leicester Square. Yeah Are you finding it difficult? Or ...

이 대화에서 다른 비정형적인 발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Square”를 발음할

때 [k]에 수반되는 반자음 [w]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원어민인 ES01은 어떤 단어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대화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K06_ES03, 6:36-7:00)

K06: So you can speak three [sri], three [sri] language [lɛŋgiziz]?

ES03: Uh, speak ...?

K06: Three languages [sri lɛŋgiziz]? Three languages [sri lɛŋgiziz], three [ɚi] language [lɛŋgiz].

ES03: Um ... Three ...

K06: Languages [lɛŋgwɪdʒiz].

ES03: Yeah, just about it. Just about, I can speak three languages and reading and writing.

“language”를 발음할 때 [g]에 수반되는 반자음 [w]가 제대로 발음되지 않으면서 ES03도 언어 학습에 관한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명확함에도 단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K06이 자신의 비정형적 발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반자음을 수반해 [g]를 [gw]로 수정하자 비로소 원어민은 단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원어민과의 담화 상황에서 보여주는 수용와 수렴 현상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반자음이 수반되는 파열음을 반자음이 없이 발음할 경우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아울러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담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발음을 이해 가능성이 있도록 수용해 발음의 수렴 현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다.

영국적 상황에서는 북미 영어의 설탄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 설탄음으로 발음할 경우 이해 가능성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는 예도 찾아볼 수 있었다.

(K15_K16, 2:58-3:04)

K15: You know snow boarding [bɔ:ɪŋ].

K16: Snow balling?

K15: Yea, snow boarding [bɔ:ɪŋ].

K16: Snow boarding. Wow, sounds cool!

한국인 간의 담화인 위 대화에서 K15는 “boarding”의 [d]를 발음할 때 북미 영어에서처럼 설탄음화가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설탄음 [r]로 발음하는 경향이 컸다. 한국인인 K16은 동일한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모국어의 영향 때문에 파생된 변이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K15의 발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K15가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북미영어의 전형적인 유형에서 벗어나 파열음으로 발음을 재수정 했을 때 비로소 K16은 정확한 단어를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발음의 변이가 모국어 간섭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언어를 공유하는 화자 간에도 발음의 수용과 수렴이 가능함을 이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15_NES08, 6:55-7:09)

K15: Do you like to sweating [swɛrɪŋ]?

NES08: Swearing.

K15: Yeah.

NES08: Sweading [swedɪŋ]?

K15: After, after exercise.

NES08: Yeah.

K15: Maybe you get some sweating.

NES08: Sweading ... Ah, yeah, sweating [swɛrɪŋ].

위 대화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 K15와 일본인 영어 사용자 NES08 간의 대화이다. 이 대화에서도 K15는 여전히 “sweating”의 [t]를 발음할 때 북미 영어의 전형적인 설탄음 [r]로 발음하고 있다. NEW08은 단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단어에 대한 몇 가지 기술이 있을 후에야 K15가 발화한 단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 이 역시 Jenkins(2000)가 제시한 것처럼 비원어민 간의 대화나 최소한 영국에서의 담화에서는 북미 영어의 설탄음화가 가능한 환경에서도 설탄음보다는 [t]나 [d]와 같은 파열음으로 발음해 주는 것이 이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원어민이나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의 발음을 인식할 때 파열음이 비기식음(unaspirated sounds)으로 발음되어야 할 환경에서 기식음이 아닌 비기식음으로 발음될 때, 외래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음 대화에서 발견

되었다.

(K01_ES01, 4:38-50)

ES01: I think we are going camping [kʰæmpɪŋ].

K01: Cam [kʰam] ...?

ES01: You know camping.

K01: Ah, I didn't know.

ES01: Like if we are going camping in a tent.

K01: Ah, tent. Ah, camping [kʰempʰɪŋ]. I know, I know.

위 대화에서 비원어민의 “camping”은 정형적인 발음으로 전달되었지만 K01은 그 단어가 한국인에게 익숙한 외래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무성파열음이 기식음화가 되지 않는 비강세 음절의 음절 초 자음임에도 불구하고 기식음화 되지 않을 때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이해 가능성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실제로 ES01의 자세한 기술에 의해 K01이 단어를 이해하고 나서는 비강세음절의 음절 초 무성파열음을 기식음으로 다시 발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비원어민 영어 청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원어민 영어 사용자가 수용과 수렴 현상을 발휘해야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4.2 마찰음 및 파찰음

마찰음과 파찰음의 비정형적 발음 가운데 어말이나 형태소 경계에 모음을 삽입하는 경향과, 마찰음 [f], [θ] 등이 파열음 [p], [t] 등으로 대체되어 발음되는 경우, 치경음 [s]가 치음 [θ]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이해 가능성에 큰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θ]와 같은 치마찰음이 [s]와 같이 치경 마찰음으로 발음되거나, [tʃ], [dʒ], [ʃ]와 같은 치경경구개음이 [ts], [z], [s]와 같은 치경음으로 발음될 때는 이해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대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 또 마찰음의 인식에 필요한 마찰 소음 구간이 충분히 실현되었더라도 소음 구간 직전에 현저하게 묵음이 삽입될 경우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이해 가능성에 문제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말이나 형태소 경계에 모음이 삽입되는 경향은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K01_NES01, 8:35)

K01: Busan is, er, has a lot of beach [bitsi], beach [bitsi].

NES01: Uhm, Uhm.

K01: But there are, there are a lot of scene [eɪn] for beautiful woman.

(K14_ES07, 2:25-2:30)

K14: I had two months [mʌneɪz] vacation for myself.

ES07: Huh, huh, huh.

(K14_NES07, 0:44-0:49)

K14: I will stay here for two months [mʌneɪz].

NES07: And are you alone?

K14: Yea, I'm alone.

이 대화 외에도 많은 대화에도 어말이나 형태소 경계에서 모음이 삽입되는 경향이 많았지만 원어인 영어 사용자, 비원어인 영어 사용자를 막론하고 이해 가능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마찰음 [f], [θ]가 파열음 [p], [t]로 대체되어 발음되는 경우도 많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아래 대화에서처럼 이해 가능성에 큰 문제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K01_NES01, 6:20-30)

K01: Paris has a lot of cafe [kʰapʰe], cafe [kʰafe]

NES01: Cafe.

K01: Yea, And I want to see Eiffel Tower [tʰap], Eiffel Tower [tʰap],
Eiffel Tower [tʰap], Eiffel Tower [tʰap].

NES01: Ah, Eiffel Tower [tʰaəə].

K01: So, I want to go there.

K01은 마찰음이 파열음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바로 마찰음으로 바꾸어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K13_NES07, 3:46-3:54)

K13: And the train was awful.

NES07: Oooh!

K13: The seats was dirty, filthy [fɪlti], and, oh, there's no ... That was the in summer time, but there was no air conditioner.

이 대화에서도 K13이 “filthy”를 발음할 때 [θ]를 [t]로 대치하여 발음하고 있지만 대화는 단절 없이 진행되었다.

(K08_ES04, 3:25-3:50)

K08: Yes. Mmm- (0.5) ('hhh) some, my friends, some people:, some people speaks very well=

(0.8)

ES04: Yeah.

K08: = English [ɪŋɡɪlɪsi]=

ES04: Yeah.

K08: = but (0.7) I think [tɪŋk] (0.6) uh:: reading [lɪdɪŋ] is very excellent [but] (0.8) um::

ES04: [Yeah].

K08: = li, li, life [laɪp] speak (0.7) life [laɪp] speaking=?

ES04: Yeah.

위 대화에서는 “think”의 [θ]는 [t]로, “life”의 [f]는 [p]로 발음되고 있지만 대화의 흐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어 조음과 가까운 [s]를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음인 [θ]로 발음하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이 음성 자료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01_NES01, 8:35)

K01: Busan is, er, has a lot of beach [brɪsi], beach [bitsi].

NES01: Uhm, Uhm.

K01: But there are, there are a lot of scene [eɪn] for beautiful woman.

이 대화에서는 “scene”의 [s]가 오히려 [θ]로 발음되고 있지만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없이 대화가 진행되었다.

반면에 치경경구개음이 치경경구개음의 이차조음인 원순성이 결합된 치경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이해 가능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K01_K02, 4:10)

K02: Where do you live in here?

K01: I am in Swiss cottage [kʰotiz].

K02: (whispering) Ah! Know.

이 대화에서 “cottage”의 어말 자음인 치경경구개 파찰음 [ɟ]가 치경 마찰음 [z]로 발음되고 있는데 K02는 다소의 머뭇거림 이후에 단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K06_ES03, 6:36-7:00)

K06: So you can speak three [sri], three [sri] languages [lɛŋgiziz]?

ES03: Uh, speak ...?

K06: Three languages [sri lɛŋgiziz]? Three languages [sri lɛŋgiziz], three [ɐri] language [lɛŋgiz].

ES03: Um ... Three ...

K06: Languages [lɛŋgwidɟiz].

ES03: Yeah, just about it. Just about, I can speak three languages and reading and writing.

위 대화는 파열음을 설명할 때도 등장한 대화인데 “languages” 형태소 경계에 있는 치경경구개 파찰음 [ɟ]가 치경 마찰음 [z]로 발음되면서 다른 요소와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ES03은 단어를 제대로 인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K06이 대화의 단절을 인식하고 발음의 수용 현상을 보이면서 [z]를 [ɟ]로 수렴하고서야 ES03은 정확한 단어를 인식하게 된다.

위의 대화는 치음 [θ]가 치경음 [s]로 발음될 때도 이해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K06이 “three”를 [sri]로 발음했을 때, ES03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K06이 수용 현상을 보여 [ɐri]로 발음을 수정하자 그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였고, 단계적으로 K06이 “languages”라는 단어

에 대해서도 수용 현상을 실현하면서 비로소 ES03가 전체 어구인 “three languages”를 이해하게 되었다. 주어진 대화 주제가 “Language learning”이 었기 때문에 담화의 맥락이 분명했고, 단어 자체가 어렵지 않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비정형적 발음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이해 가능성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다. 위 대화는 [ə], [gw], [ɔ] 음이 [s], [g], [z]로 발음될 때 이해 가능성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짧은 대화 상황에서도 ILT 상황에서 수용 현상을 통해 수렴 현상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찰음의 마찰 소음 구간 자체는 제대로 구현되었더라도 마찰 소음 직전에 실현되는 현저한 묵음 구간으로 인해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K02_NES01, 9:13-27)

NES01: What present do you want?

K02: Uh, visa [viza]?

NES01: Pizza?

K02: Visa [viza].

NES01: Uh, what's that?

K02: Just, ... uh, I want to add my visa [viza].

NES01: Uh.

K02: date.

NES01: Oh, OK.

K02: Yah.

위 대화에서 K02는 “visa”의 [v] 발음의 마찰 소음 구간이 짧지도 않았지만 이태리어 화자인 NES01은 대화가 끝날 때 까지 “visa”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pizza”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visa”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휘 능력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K02가 “visa”를 발음하기 위해 발음한 세 번에 걸친 [v]의 마찰 소음 구간은 각각 92 ms, 106 ms, 21 ms 이었다. 이것은 Jongman(1989)에서 분석한 영어의 마찰음을 [v]로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마찰 소음 구간인 50 ms를 대체로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연속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찰 소음 직전에 나타나는 현저한 묵음 구간으로 인해 NES01이 단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3 접근음

접근음 가운데 유음 [l], [ɹ]이 서로 대치되거나, 유음이 설탄음 [r]로 대치되는 현상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아주 빈번히 발견되는 현상으로 한국인 학습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동양권 대화 참가자들 간에서는 거의 이해 가능성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원어민 영어 사용자나 일부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들과의 대화에서는 이해 가능성에 큰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

유음이 서로 자리를 바꾸거나 설탄음으로 구현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는 다음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K01_ES01, 00:30-00:41)

K01: I have to bring camera [k^hamera], because I want to take a picture of ...

ES01: Um, Um

K01: So I need to ... And, ... and you?

(K01_ES01, 7:48-58)

K01: I'm ... I have to learn [ɹæn] English [ɪŋɡɪlɪsi] now.

ES01: You have to learn English.

K01: Learn [ɹæn] English.

ES01: Yeah.

(K01_ES01, 8:38-42)

KS01: Yeah, just Korean Airline [eəraɪn].

ES01: Korean Airline, yeah, yeah.

이 대화들에서 유음이 설탄음으로 바뀌거나 [l], [ɹ]이 서로 대치되고 있지만 의사소통의 이해 가능성에는 큰 문제없이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recently [ˈɹɪsntɪli], remembering [lɪˈmembərɪŋ], read [ɹɪd], really [ˈɹiəli], are [ɑː], art [ɑːt], relation [lɪˈleɪʃn], record [lɪˈkɔːrd], write [ɹaɪt], Roma [ˈlɒmə], already [ɔːlɹedi], river [ˈlɪvər], and rained

[leɪnd]” 같은 사례에서 유음이 비정형적으로 발음되고 있었지만, 이해 가능성에 큰 문제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이해 가능성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K01_ES01, 6:20-40)

ES01: Are you, are you studying here in this, in this country?

K01: Yes .. uhm ..., I just studying English [ɪŋɡɪlɪsi]

ES01: English. In central London? Or

K01: Yeah, in central, uh ... Do you know Leicester [restə] Square [skeə]?

ES01: Uh, sorry?

K01: Leicester [restə] Square [skeə], Charing Cross Road.

ES01: Oh, Leicester Square, Leicester Square. Yeah Are you finding it difficult? Or ...

앞서 과열음에 관한 사례에서 등장한 담화이지만 원어민 영어 사용자와의 담화에서 “Leicester Square”를 발음할 때 K01이 “Square”의 [k]를 발음할 때 반자음 [w]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두의 [l]이 설탄음 [r]도 발음됨으로써 원어민이 런던의 랜드마크인 그 지명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K01이 다른 단서를 통해 그 지역을 묘사하고서야 비로소 ES01이 제대로 단어를 인식하고 있다. 지역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이유를 녹음 후에 문의한 결과 개별 단어의 발음이 이상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유음이 서로 대치되거나 설탄음으로 바뀌 경우라도 이해 가능성에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상황과 맥락이 분명한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로 인해 심각한 의사소통의 장애나 이해 가능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06와 스페인 출신 영어 사용자인 NES03 간의 대화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K06_NES03, 0:37-1:05)

K06: I learned about designing. And my theme, my theme was, uh, Wonderland [wʌndəˈrɛnd].

NES03: What?
 K06: Alice in Wonderland [wʌndə'rend].
 NES03: Won
 K06: You know about Alice in a, wo, in the Won [wʌn], Wonderland [ʌndə'rend].
 NES03: Um ...
 K06: Alice in Wonder [ʌndə], Wonderland [ʌndə'rend].
 NES03: No, I don't know.
 K06: [(That is ...)]

이 대화에서 K06은 “Wonderland”의 [l]을 설탄음 [ɾ]로 발음하고 있다. 대화의 마지막까지 그 발음에 대한 수용과 수렴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화는 NES03의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동일한 화자 간의 다음 대화는 [ɹ]이 [l]로 대치되면서 의사소통의 장애가 발생하는 사례이다.

(K06_NES03, 8:13-8:43)
 K06: My parents is, is a very important [ɪmpɔ:ɪ'thənt] for me.
 NES03: for that this ...
 K06: I think for you as well ...
 NES03: Um, why do you think, why do you think ...
 K06: Because they, they raise [leɪz] me.
 NES03: Sorry?
 K06: They raise [leɪz] me.
 NES03: Lays [leɪz]?
 K06: Yah. They, uh
 NES03: Um.
 K06: They, uh ...
 NES03: They protect you and yah, they treat you very well.
 K06: Yeah, they took, took care of me
 NES03: Are you ok son, I loved you. And that kind of thing.

NES03은 K06의 발음만으로는 “raise”라는 단어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추측을 바탕으로 K06이 말하고자 하는 단어를 묘사하고 있다. 발음의 수용과 수렴 현상 없이 서로 간의 의미 협상 전략을

통해 NES03은 K06이 전달하고자 하는 단어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다.

5.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어학습자 20명, 원어민 영어 사용자 8명,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 8명이 ILT 상황에서 ELF를 구현한 음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LFC 자음 자질에 대한 수용과 수렴 현상을 살펴보았다. 파열음과 비음에서는 어말이나 형태소 경계에 모음을 삽입하거나, 철자 상으로 연속해서 오는 비음을 길게 발음한다거나, 파열음을 마찰음으로 발음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의사소통의 이해 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반면 반자음이 이어져 원순이 수반되는 파열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복미 영어의 설탄음화를 구현할 경우 이해 가능성이 떨어졌고, 원어민 영어 사용자가 발음한 비강세 음절 초에 오는 비기식 무성 파열음(unaspirated voiceless stops)의 경우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찰음과 파열음의 경우 어말이나 형태소 경계에 모음이 삽입되는 경우, 마찰음이 파열음으로 대체되는 경우, 치경 마찰음이 치마찰음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이해 가능성에 문제가 없었지만, [θ]와 같은 치음이 [s]와 같이 치경음으로 발음되거나, [tʃ], [dʒ], [ʃ]와 같은 치경경구개음이 [ts], [z], [s]와 같은 치경음으로 대체될 때는 이해 가능성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찰 소음 구간 이전에 불필요한 묵음 구간이 삽입될 때도 파열음과 혼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음은 설측음(lateral) [l]과 반전음(retroflex) [ɭ]이 서로 교체되거나, 유음이 설탄음 [r]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해 가능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원어민 영어 사용자나 동양권이 아닌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와의 대화에서는 의사소통의 이해 가능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소통의 이해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비정형적 발음과, 그렇지 않은 비정형적 발음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의사소통의 이해 가능성에 문제가 없는 비정형적 발음

정형적 발음	비정형적 발음	예
[t], [d]	[tʰi], [di]	student ['stju:dəntʰi], and [ændi]
[m]	[m:]	grammar [græm:ər]
[p]	[f]	people [fi:fl]
[ʃ], [θ]	[tʃi], [θi]	beach [bitʃi], months [mʌnθi:z]
[f], [θ]	[pʰ], [t]	cafe [kʰapʰe], filthy [fɪlti]
[s]	[θ]	scene [θɪn]

표 3. 의사소통의 이해 가능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비정형적 발음

정형적 발음	비정형적 발음	예
[kw], [gw]	[k], [g]	square [skeə], languages [lɛŋgɪzɪz]
[t]	[r]	boarding [bɔ:riŋ]
[dʒ]	[z]	cottage [kʰɒtɪz], languages [lɛŋgɪzɪz],
[θ]	[s]	three [si:]
[v]	마찰음 앞의 현저한 묵음	visa [vɪzə]
[l]	[r]	Leicester [restə]
[ɹ]	[l]	raise [leɪz]

이러한 발음이 의사소통 중에 수용과 수렴 현상을 통해 이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g]가 정형적인 [gw]로, [z]가 [dʒ]로, [s]가 [θ]로 수렴 현상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그 외 비정형적 발음에 대해서는 수렴 현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

Jenkins(2000)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개별 자음을 변별해서 발음하는 것은 원어민 영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와의 ELF적 의사소통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Jenkins의 LFC 목록에서 이해 가능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치마찰음이 치경 마찰음으로 대체되는 경우 이해 가능성

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Jenkins(2000)가 비원어민 화자 간의 ILT 상황에서 수용과 수렴 현상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자음에 따라 쉽게 수용과 수렴이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열음에 반자음이 더해져 원순성을 수반하는 과열음으로 수렴되거나 치경 마찰음이 정형적인 치마찰음으로 수렴되는 현상은 관찰할 수 있었지만, 다른 비정형적 발음에서는 수렴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ELF 상황을 지향하는 발음 교육을 위해서도 ILT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전통적인 분석적인 접근법(analytic approaches)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ILT 상황에서 LFC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발음의 수용과 수렴 현상은 어떤 경향을 보이는 지 관찰하기 위해 통제적 상황에서 주어진 지문을 읽거나 단독 발화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상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담화를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음성 자료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차별화 된다. 하지만, 통제된 상황에서 동일한 환경을 두고 제시되는 틀문장에 따른 음성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연구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비정형적인 발음이 이해 가능성에 영향을 줄 때 청자의 어휘 지식이나 심리언어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청자가 가지고 있는 어휘의 양이나 일상적인 출현/청취 빈도 등 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후 자유 발화를 담은 담화를 분석 도구를 통해 어휘나 환경을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좀 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화자와 청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 실제로 수용과 수렴이 내재화되어 나타나는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음성 자료에 대해 운율, 운율에 따른 모음의 약화, 리듬, 억양, 모음의 음가에 대한 LFC 목록 및 운율과 모음의 수용과 수렴 현상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 김지은 (2012) 한국인 영어 폐쇄음 발화의 정확성과 발음 숙련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4(3): 51-57.
- 신승훈, 윤남희 & 윤규철 (2011) 한국인 영어학습자와 영어원어민이 발화한 영어 약화모음에 관한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3(4): 45-53.
- 윤원희 (2012) 영어 발음평가에서 한국인 평가자의 영어 숙련도에 따른 타당성 및 신뢰도. 『언어와 언어학』 46: 71-94.
- 정현성, 장태엽, 윤원희, 윤일승 & 사재진 (2008)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발음 정확성 자동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 『언어와 언어학』 42: 165-196.
- Atkinsons, J. M. & J. Heritage (2006) Jefferson's transcript notation. In A. Jaworski & N. Coupland (eds.), *The Discourse Reader* (pp. 158-165). Routledge.
- Celce-Murcia, M, Brinton, D. M. & J. M. Goodwin with B. Griner (2010) *Teaching Pronunciation: A Course Book and Reference Gu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terding, D. & A. Kirkpatrick (2006) Emerging South-East Asian Englishes and intelligibility. *World Englishes* 25(3/4): 391-409.
- Han, J.-I., Cho, T.-H., Lim, I. & J.-K. Lee (2011) The interlanguage speech intelligibility benefit of Korean learners of English: Production of English front vowe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eech Sciences* 3(2): 53-61.
- Hughes, R. & B. S. Reed (2006) Factors affecting turn-taking behavior: Genre meets prosody. In R. Hughes (ed.), *Spoken English, TESOL and Applied Linguistics: Challenges for Theory and Practice* (pp. 126-140). Palgrave Macmillan.
- Jenkins, J. (2000) *The Phonology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enkins, J. (2002) A sociolinguistically based, empirically

- researched pronunciation syllabus for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Applied Linguistics* 23(1): 83-103.
- Jenkins, J. (2010) (Un)pleasant? (In)correct? (Un)intelligible? ELF speakers' perceptions of their accents. In A. Mauranen A. & E. Ranta (eds.), *English as a Lingua Franca: Studies and Findings* (pp. 10-36).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Jongman, A. (1989) Duration of frication noise required for identification of English fricative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85(4): 1718-1725.
- Kim, S. & T. Cho (2011) Articulatory manifestation of prosodic strengthening in English /i/ and /ɪ/.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eech Sciences* 3(1): 23-31.
- Lindemann, S. (2006) The interlocutor in non-native speaker performance. In R. Hughes (ed.), *Spoken English, TESOL and Applied Linguistics: Challenges for Theory and Practice* (pp. 23-49). Palgrave Macmillan.
- VOICE (2013) Vienna-Oxford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 - <http://www.univie.ac.at/voice/> (검색일: 2013년 4월 12일)

[364-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태성탐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E-mail: hchung@knu.ac.kr

논문접수: 2013년 4월 12일
수정완료: 2013년 5월 15일
게재확정: 2013년 5월 25일

